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8 -  
“더 세심하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공약 발표

- 3세 이상, 교사 1인당 아동수 15~20명으로 안전사고 위험 높고 교사 업무도 과중해
- 이재명 후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공약... “보육의 질 높이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하겠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공약78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만3세반부터 OECD 수준 우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7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3세 이상반의 경우 교사 1명이 15~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2세반에서 7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살 차이로 거의 두 배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 한 명이 다치거나 담당교사가 화장실 등을 이유

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은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아이들 외에도 동료 교사 담당 아이들까지 전체 수십 명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한 어린이집에서는 친구와 부딪친 한 어린이가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게시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요청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는 저출생 시대에 더는 늦출 수 없는 보육현장의 1순위 과제” 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ی겠다” 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아동 담당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반부터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 가량 많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공약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3세반 개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전체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으로 교사와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 참고자료

## 1. 필요성

### ○ (현황) 보육현장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보육 아동의 비율 축소는 그간 보육현장의 ‘0순위’ 요구사항
  -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응답(’ 20, 서울시)
- ※ 민주당 서울시 정책엑스포,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대표 “어린이집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제안” 발표(’21)
- 우리나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선진국 대비 돌봄 부담이 큰 편(하단 표 참조)
  - 만0세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이며, 만3세반은 교사가 돌봐야 하는 아동 수가 직전 반(만2세반 7명)에 비해 급격히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
  - 우리나라 유아반(3~5반) 교사 1명당 담당하는 평균 아동수는 18.3명, **OECD 회원국 평균 13.6 명보다 4명 이상 많음**

<영유아보육법 제17조5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한국)>

구분(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한국*	1:3	1:5	1:7	1:15	1:20	1:20
영국	1:3	1:3	1:4	1:8	1:8	1:8
미국	1:5	1:5	1:5	1:5	1:5	1:5
아일랜드	1:3	1:3	1:3	1:6	1:6	1:6
핀란드	1:4	1:4	1:4	1:4	1:7	1:7

※ 단, 국가마다 육아 서비스 분류기준과 자격 기준, 교사역할 등의 차이가 존재하여 정확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 (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는 영유아 발달 특성과 사고 위험 고려 시 핵심 과제

- 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해소 필요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의 아동이 보육 활동을 진행,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연평균 8천 건, 사망사고 27명(’ 18 기준)]
  -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은 영유아 보육의 핵심축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보육현장·전문가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요구, 국민적 관심 증폭]

#### ○ ‘인천 어린이집 사망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놀다 친구와 부딪친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도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 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에 대한 법령개정을 바랍니다”
  - 청원 참여 인원 : 20만6,063명 (2020.12.13. 마감)
- (청와대 답변) ‘교사 대 아동 비율 확대’가 아닌 ‘보조교사 증원’을 대책으로 제시

- 저출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보육현장의 오랜 애로사항인 보육의 질 저하 및 휴게시간 확보 어려움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수립 차원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핵심 과제

## 2. 기대효과

- 보육현장 민심 충족 및 안정적 보육 제공으로 학부모의 보육 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안정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 부족
  - 연령별 발달수준과 특성에 따른 교사-아동 간 효과적 상호작용이 어려워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여성 경력 단절,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초래,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 절실

## 3. 정책추진 사례

- 현 정부, 저출산 대책 등에서 기본방향 언급, 올해 서울시는 시범사업 추진 시작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필요성 언급
  -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서도 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아이 수는 그간 변하지 않음
  - 한국은 OECD(’ 17) 국가 중 유일하게 담당 영유아수근로시간이 모두 높음 →교직원 1인당 영유아수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한 아동 비율 축소 필요[ ▲OECD 11명 / 1417시간 ▲한국 14명 / 1520시간]
- 서울시, 작년(’ 21) 7월부터 일부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 추진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 대상, 52억 원 시비를 투입해 일부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 추진 중 : 올해 만0세반 3명→2명, 만3세반 15명→10명으로 개선
  -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5대 들봄 국가책임제’](#)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습니다.

## 4.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

- 개선이 시급한 3세반을 중심으로 우선 개선,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

연령(만)	교사 대 아동 비율(안)	현행
0세	1:2	1:3
1세	1:4	1:5
2세	1:6	1:7
3세	1:11	1:15
4세	1:15	1:20
5세	1:16	1:20

\* (참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6

### ○ 고려사항

- ① 축소 대상 연령 및 비율, 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여부, ③ 직장어린이집 포함 여부, ④ 어린이집 유형(민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⑤ 영유아 인구수 감소 상황

<표> 어린이집 유형별 만3세아 이용 및 담당 보육교사 현황(2020.12)

(단위 : 개소(%), 명(%),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 총수	35,352 (100.0)	4,958 (14.00)	1,316 (3.73)	671 (1.90)	11,510 (32.56)	15,529 (43.93)	152 (0.43)	1,216 (3.44)
영유아 총수	1,244,396 (100.0)	253,251 (20.35)	78,322 (6.29)	34,066 (2.74)	578,196 (46.46)	230,444 (18.52)	3,716 (0.30)	66,401 (5.34)
만3세아 총수	214,853 (100.0)	50,676 (23.59)	17,583 (8.19)	7,692 (3.58)	122,606 (57.07)	864 (0.41)	833 (0.39)	14,599 (6.80)
만3세 담당 교사수①	14,327	3,379	1,173	513	8,174	58	56	974
만3세 담당 교사수②	19,535	4,607	1,599	700	11,146	79	76	1,328
추가교사수③	5,208	1,228	426	187	2,972	21	20	354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2020년 12월 말 기준. 103.

① 보육교사 1명이 만3세아 15명을 담당하는 경우 필요 보육교사 수

② 보육교사 1명이 만3세아 11명을 담당하는 경우 필요 보육교사 수

③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 = 만3세아 11명당 보육교사수(②) - 만3세아 15명당 보육교사수(①)

<표> 보육교사 1명당 담당 만3세아 11명으로 축소 시 추가 요구 보육교사수

(단위 :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추가요구교사총수①	5,208	1,228	426	187	2,972	21	20	354
인건비지원율②		90.78	98.48	81.67	2.06	0.29	-	41.69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추가요구교사수③	1,899	1,115	420	153	62	1	-	148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추가요구교사수④	1,751	1,115	420	153	62	1	-	-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추가요구교사수⑤	3,309	113	6	34	2,910	20	20	206

①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 = 만3세아 11명당 보육교사 수 - 만3세아 15명당 보육교사 수

②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비율

③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대상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직장어린이집 포함)

④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대상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직장어린이집 미포함)

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대상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 = 총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에서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추가 요구 보육교사 수를 제외한 수

## Q & A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확대 관련 Q&A

#### Q1.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꼭 필요한가요?

☞ 한국은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 속에서도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 수는 그 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에서도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성 제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OECD('17) 국가 중 유일하게 담당 영유아수 · 근로시간이 모두 높아, 교직원 1인당 영유아수·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한 아동 비율 축소가 절실합니다(▲ OECD 11명 / 1417시간 ▲ 한국 14명 / 1520시간). 보육교사의 80%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꼽기도 했습니다.

#### Q2. 어린이집 교사 1인이 담당하기에 적절한 아동 수는 몇 명인가요?

☞ 현재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약 4명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낮은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돌봄 부담이 커서, 교사 1명이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고 안전사고까지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2017)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0세반 2명, 1세반은 4명, 2세반은 6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육현장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Q3. 담당 원아 수 조정으로 인해 재정이 많이 소요될 우려는 없나요?

☞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여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인구수는 2014년 1,496,671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후 재원 아동 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자,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령, 만3세 담당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교사 인원 보다도 원아감소로 줄어드는 보육교사 총 인원이 약 2배가량 많습니다. 원아 수의 감소가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포함, 저출생 대책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